



주앙파울로

프로축구 '광주FC 돌풍' 해결사 주앙파울로가 있다

광주 FC의 해결사 주앙파울로가 2라운드 연속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주앙파울로가 3일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한 K리그 2011 8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처음으로 베스트 11 선정됐던 주앙파울로는 정규리그 3경기 연속 골을 앞세워 2주 연속 명단에 포함되며 스타 탄생을 알렸다.

위기가 기회였다. 주앙파울로는 지난 2월말 뒤늦게 신생팀 광주에 합류했다. K리그 개막을 앞둔 광주 유니폼을 입으면서 선수단과 손발을 맞출 시간이 짧았고, 브라질과 다른 한국 축구의 조직력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다.

빠른 스피드와 순간적인 폭발력에도 불구하고 최만의 감독이 주앙파울로의 기용에 신중을 기했던 이유다. 신생팀으로 조직력을 우선으로 해야했던 상황에서 토종 골잡이 박기동·김동섭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주앙파울로의 입지가 좁았다.

하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박기동과 김동섭의 움직임이 주춤한 사이 주앙파울로의 공격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전북과의 경기에서 주앙파울로의 한국 무대 첫 골이 터졌다. 이날 팀은 전북에 1-6으로 대패를 기록했지만 주앙파울로의 골이 3경기 연속 무득점의 사슬을 끊었다.

4월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7라운드 경기에서 주앙파울로는 시즌 두 번째 골로 난적 서울을 무너뜨렸다. 전반 34분 이승기의 패스를 받은 주앙파울로는 오른쪽 슈팅으로 서울의 골문을 갈랐다. 이 골은 광주의 1-0 승리를 장식하는 결승골이 됐다.

1일 안방에서 열린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주앙파울로가 영웅이 됐다.

전반 6분 광주의 선제골 뒤에 주앙파울로가 있었다. 프리킥 키퍼로 나선 주앙파울로가 감아찬 공이 아쉽게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갔지만 이승기의 발에 걸리면서 골이 됐다. 후반 34분에는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

3경기 연속 골...2주 연속 베스트 11

"팬들위해 더욱 멋진 경기 펼치겠다"

수 두 명을 따돌리고 세 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다. 대전을 흔든 주앙파울로의 활약으로 광주는 2-1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주앙파울로는 "전남과의 컵대회에서 페널티킥 실축을 하기는 했지만 서울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자신감을 찾았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을 넣으며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추운 날씨에 힘들기도 했지만 날이 풀리면서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고 한국 생활에도 큰 어려움은 없다.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위해 더욱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권여왕 황경선 너마저...

3일 경북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7kg급 준결승전에서 황경선(청색)과 스테벤슨 사라 다이아나(영국)와 발차기를 주고받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랭킹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1위에 올라 있는 황경선은 2005년 마드리드(스페인)와 2007년 베이징(중국) 대회에 이어 세계대회 세 번째 금메달을 노렸지만, 결승에도 올라보지 못하고 5-8로 저 통메달에 그쳤다.

/연합뉴스

전남·울산 컵대회 조1위 싸움

광주는 상주 상대 끝까지 탈출 나서

전남 드래곤즈가 컵대회 B조 1위 자리를 놓고 울산 현대와 맞붙는다. 전남은 4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러시아엔 캐시컵 2011 B조 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광주와의 컵대회 3라운드 대결에서 이운재의 선방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두며 2승1무, 무패행진중이다. 하지만 4번째 대결에서 만나게 된 울산은 3연승을 달리며 전남에 승점 2점 차로 앞서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울산이 1승2무로 전남보다 우위에 서있다.

최근 정규리그 두 경기에서 상주와 부산에 연속해서 발목이 잡힌 전남은 컵대회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FC는 5일 오후 3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상주 상무와 끝까지 탈출을 다룬다.

광주는 정규리그 2연승을 달리며 K리그 5월 돌풍의 핵으로 떠올랐지만 컵대회에서는 3전 전패로 부진하다. 상무도 정규리그 4승4무로 3위에 오르며 K리그 관도를 좌우하고 있지만 컵대회에서 역시 승점이 없다. 특히 광주는 3차례의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8실점만 기록하고 있다. 광주의 컵대회 첫 득점포가 가동될 지가 관심사다.

한편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전남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무료 입장 행사를 준비했다. 경기장 밖에서는 페이스 페인팅과 요술 풍선 등의 이벤트가 펼쳐지며 영화관람권, 축구구공, 사진촬영권 등 경품도 마련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돌아온 김진우 "아직은..."

2군경기 2.10이닝 3실점 패전

마운드 복귀를 노리고 있는 김진우가 첫 2군 피칭을 소화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김진우가 3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2군 경기에서 2와 3분의 1이닝 동안 3실점을 했다.

선발로 등판한 김진우는 50개의 공을 던지며 4피안타 3사구 2탈삼진 3실점의 기록을 남겼다. 커브·슬라이더·체인 지업 등 변화구를 구사했고 직구 최고구속은 146km를 찍었다.

다.

두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출발은 좋았지만 주자를 내보낸 뒤 밸런스가 흔들리며 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가 증가하면서 구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목직한 직구로 첫 등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김진우는 이날 경기에서 팀이 1-6으로 패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2군행 "어쩌나..."

어깨·허리 부상에 컨디션 난조

'빅쇼이' 최희섭이 어깨와 허리 통증에 따른 컨디션 난조로 2군으로 내려갔다.

KIA 타이거즈는 3일 내야수 최희섭을 2군으로 내리고 외야수 임한용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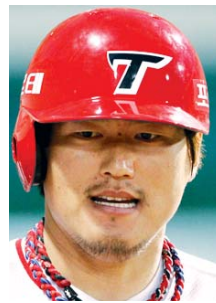
허리통증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중도하차했던 최희섭은 지난 LG전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는 도중 허리를 다쳤다. 또 최근에는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롯데와의 주말경

기에서 1루수 대신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최희섭은 올 시즌 0.307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상에 따른 컨디션 난조로 최근 5경기에서는 15타수 1안타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희섭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은 뒤 1군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애 "눈때문이야"

라식수술 피로로 대회 포기

신지애(23·미래에셋)가 눈에 쌓인 피로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골프대회 하나를 건너편다.

신지애는 5일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개막하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안구 건조증세와 눈부심 증세가 나타나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매니지먼트사인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이 3일 밝혔다.

세계여자골프랭킹 2위인 신지애는 지난해 12월 라식수술을 받았다.

세마스스포츠는 "신지애의 증세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달리 그린의 라인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하는 프로 골퍼의 특성 때문에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이번 주는 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지애는 6일 미국으로 출국해 19일



(현지시간)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증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1층 국제보청기
순대각로
종로 5가 4번 출구 동대문시장역

찾아오시는 길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국제보청기
www.kjhr.com